이 내용은 일본 「노동위생」지에 게재된 노동위생활동에 관한 Q&A를 번역한 것입니다. 산업보건관계자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선제안의 활성화

Q 당 사업장에서는 안전위생활동의 일환으로 라인의 작업자들에게 개선제안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배려가 필요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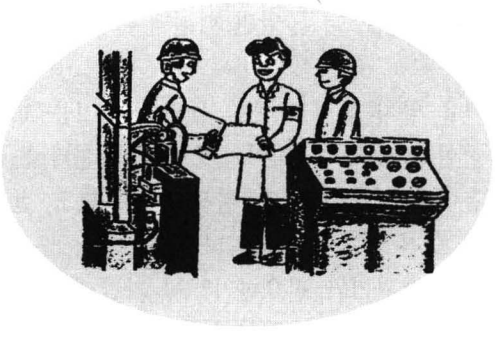
A 위생관리에 대한 라인작업자의 문제파악은 안전관리와 같이 추진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안전관리와 위생관리의 큰 차이점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1) 목표 특성의 차이

안전관리의 목표인 '업무상 부상'은 대부분 순간적으로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자에게 있어서도 긴장감을 갖게 하기 쉽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위생관리에 있어서는 만성장해의 명확한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어렵고, 급성장해의 경우에도 산소결핍이나 일산화탄소중독 등 원인물질이 '무미무취'라는 점에서 위험의식이 없는 수가 있으며 조금만 소홀해도 긴장감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자기인식 · 결정범위의 차이

직장의 안전관리는 어느 정도 자신들만의 힘으로 확인하고 생각하며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생관리는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진단 등에 있어서 전문가의 힘을 빌릴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 가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실시해가야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3) 지표의 존재 유무

안전관리에는 『무재해계속일수』 등과 같은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인 관리지표가 존재하는데, 위생관리에는 같은 종류의 지표가 설정되기 어렵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살펴보면, 위생관리를 적절하게 추진해가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관리를 꾸준히 계속할 필요가 있으며, 시스템틱한 관리체제의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새삼 느껴집니다. 위생관리스탭은 많은 목표와 다양하게 걸친 관리항목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일에서 필요한 배려를 하면서 조정역으로서의 직무를 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회의 질문을 살펴봄에 있어서 먼저, 위생관리스탭의 입장에서 어떻게 문제를 파악해갈 것인가를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간단하게 건강장해방지의 요점을 열거합니다.

① 직장의 유해요인을 파악한다.

② 건강장해방지를 위한 방책을 검토한다(위생대책설비의 설치를 포함).

③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평가한다.

④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파악한다.

⑤ 필요한 작업주임자를 배치(선임)하고, 그 자에게 작업을 지휘토록 한다.

⑥ 작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⑦ 위생대책설비의 점검·검사를 실시한다.

⑧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고 일정기간 보존한다.

이러한 항목은 어떠한 사업장에 있어서도 실시되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위생관리스탭으로 일을 하면 사업장내에서 이러한 항목이 어떻게 실시되며, 어떠한 평가로 이루어지는가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라인 작업자의 입장에 서서 보면 어떠합니까? 다음과 같은 라인 작업자에 대한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자기 직장의 유해요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알고 있는가?

2) 자기 직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평가구분은 알고 있는가?

3) 직장의 위생대책설비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어떠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라인 작업자 자신이 '잘 모른다'고 하면 단지 개선안을 제출하고 요구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적을 알지 못하고 불쑥 돌입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며, 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어떤 대책도 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위생관리가 필요한가? 이 자각 없이는 자신들의 직장을 개선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왜 위생관리가 필요한가?
이 자각 없이는 자신들의 직장을 개선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리일 것입니다.

무리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술한 것은 '정보 공유(이해)의 필요성' 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중에는 취급하는데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균형감각을 가진 위생관리스탭이 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가볍게 제안하고 싶다고 생각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우는 개선제안이라고 하는 굳어진 인상이 아니라 『직장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는』 등의 테마로 자유롭게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 몇 가지는 위생관련의 개선제안을 포함시키면 바람직하다고 보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제안토록 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자신의 제안이 어떻게 채용되었는가, 결과를 포함하여 직장 내에서 알기 쉽게 게시하거나, 실제로 개선을 실시하여 효과를 올린 제안에 대하여는 일정기준으로 표창하는 일도 생각해 봅시다. 다시 말해서, 라인 작업자가 이해하고 공감하기 쉬운 형태로 하는 연구가 제안건수의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어느 수준에서 현장 측에 제안을 구할 것인가, 현장 측에서의 제안을 어떤 위치로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구체적인 실시방책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안전관리와 위생관리의 다른 점에 대하여 간단하게 서술하였습니다. 위생관리는 갖가지 인간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단기적·장기적으로 건강장해를 방지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는 알기가 어렵다'고 하는 발언을 흔히 듣는데, 위생관리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정보가 부족하거나 혹은 정보가 있어도 활용방법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알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아닐까요?

자신들에게 관계되는 작업이 위생관리상 어떤 문제가 있으며, 설비는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적정한 정보를 이해하여 두는 것으로서 위생관리가 어려운 일이며 알기 어렵다고 하는 인상이 약간은 덜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론에 불과할지 모르겠으나 라인과 일체가 된 위생관리, 위생개선을 추진하도록 한다면 이 길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단번에 실행하는 일은 불가능하나 조금씩 중장기적 시야에 입각한 구성요소를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